

▶1면에서 이어집니다

점차 종착지를 향할수록 과열될 수 있는 선수들 간의 경쟁과 과도한 긴장을 막는 한 편으로 자신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줄곧 강조한 ‘하나’의 철학을 분명히 드러낸 발언이었다. ‘원 팀, 원 스피릿, 원 골’이라는 기치 속에 대표팀은 서서히 뭉쳐가고 있는 것이다. 홍 감독은 “이구아수에서 월드컵 베이스캠프 분위기를 느끼며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To. 코치진=서로 돕고 빠르게 적응하자

이번 동계훈련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다. 월드컵 원정 8강 신화를 함께 준비할 코칭스태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김태영 코치, 박전하 코치, 김봉수 골키퍼 코치,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 코치(일본)는 물론이고 최근 선임된 안톤 두 샤프니에 전력분석 코치(네덜란드)와 대구FC와 부산 아이파크에서 탁월한 감각으로 호평 받은 테니스 이와무라 코치(브라질)가 비디오 분석 담당으로 합류했다. 축구계에선 ‘역대 최강 코칭스태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다국적 지도자들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코치진에 대한 홍 감독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과정에 주목했다.

“(외국인 코치들이) 우리 선수들을 알아야 한다. 축구문화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서로 도우면서 한 팀으로 흡수돼야 한다.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다.”

이는 결국 코칭스태프의 역량 극대화에도 일맥상통한다.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 믿고 알아간다면 자연스레 높은 수준의 팀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홍 감독은 “우리는 아직 월드컵을 향한 과정에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부담 초기 6개월간의 부족한 면을 잘 채우려고 본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다.

31시간 고된 여정 끝 마침내 ‘악속의 땅’



남장현 기자, 홍명보호 브라질 동행기

중간급유·환승·지연…지루함과 사투
영화·음악·독서도 지치면 꿀아 떨어져

15명 스태프 150여개 짐 챙기랴 혁혁
환승 수속 땀뻘더니 2시간 연착 허탈

이구아수 도착하자 대규모 환영 인파
선수들 “월드컵 체제 이제야 실감난다”

축구대표팀 홍명보호는 15일 오전 5시(한국 시간) 동계 강화훈련지인 브라질 포스 도 이구아수에 도착했다. 이구아수에서 미국까지 앞으로 3주 간 이어질 전지훈련의 첫 걸음이었다. 이구아수 공항에는 마중 나온 현지 교민들이 태극기가 그려진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대표팀 선수단을 환영했다. 브라질 취재진도 대거 몰려들어 열기를 더했다. 공항 출국장을 나온 선수들은 모두 “월드컵 체제라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표팀을 돕는 스태프는 굉장히 바빴다. 인천 국제공항 출국부터 브라질 입국까지 신경 쓰며 챙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선수들처럼 여권과 비행기 티켓만 들고 움직일 수는 없었다. 장비 담당 등 지원팀을 포함한 15명의 스태프는 넓고 편안한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하는 선수들과는 처지가 달랐다. 산적한 짐들을 일일이 부치고 확인하느라 가장 먼저 움직였고, 또 가장 늦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물자 수송도 엄청났다. 챙긴 짐들만도 무려 150여 개에 달했다.

브라질 경유지 상파울루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상파울루 과플루스 공항은 승객이 많긴 집이 원체 늦게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라 대표팀 스태프는 공항 측의 협조를 구해 선수단 짐을 가장 먼저 찾도록 했고, 전용 창구를 마련해 일반 승객들과는 따로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었다. 상파울루에서 입국 수속을 밟고 국내선 환승까지 여유 시간이 2시간10분에 불과해 서둘러야 했다. 하지만 정장 국내선인 이구아수행 비행기는 별 이유도 없이 2시간가량 연착됐다. 애초에 서둘 필요도 없었던 셈이다. 물론 6월 월드컵 때는 대표팀은 전용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대기실에서 기약 없는 호출을 기다리던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은 항공편 연착이 비일비재하다. 작년 12월 초 월드컵 초 주춤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지인들은 연착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지나긴 비행시간과 3차례에 걸친 복잡한 경유 스케줄이었다. 선수단 모두 피로움을 호소했다. 중간 급유지 미국 LA를 거쳐 상파울루까지 이동하는데 25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 4시간을 더 기다려 이구아수까지 1시간30분을 날아갔다.

입국하고 수속 밟고 짐을 옮길 때면 곳곳에서 “버티는 게 가장 큰 일”이라는 푸념이 들려왔다. 한국에서 미주 대륙까지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가며 하루를 벌었지만 피로라는 달갑지 않은 친구(?)도 얻었다. 일행이 이구아수에 도착한 현지시간 14일 오후는 한국시간 15일 새벽이었다. 인천에서 이구아수까지 오는데 정확히 31시간이 소요됐다.

저마다 지루한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나름의 준비를 하긴 했다. 특별한 건 없었다. 역시 영화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이었다. 자신의 태블릿 PC에 드라마, 영화 시리즈물을 담아와 공

유하기도 했다. 무난한 시차 적응을 위해 기급적 비행기에선 잠을 자지 않으려는 이들도 있었으나 대개는 기내식을 먹고 꿀아 떨어졌다.

일부 독서파도 보였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선수단에 경영 컨설턴트 에릭 시노웨이와 프리랜서 작가 메릴 미도우의 공동 저서 <하위드의 선물>을 선물했다.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해온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교수와 그의 제자인 에릭의 대화록을 정리한 책이다. 평범한 어느 날 교정을 거닐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하워드 교수의 인생론과 삶의 지혜가 담겼다. 기적과 같이 깨어나 자신을 격정하는 이들에게 “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하워드 교수의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선수들도 ‘후회 없는 인생’이란 문구에서 또 다른 영감을 얻었다고 했다.

“무리해서 잘하기보다는 일말의 후회가 남지 않도록 내가 가진 걸 보이고 싶다”고 골키퍼 정성룡(수원 삼성)은 말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위기론’조차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긍정의 마음 가짐이었다. 그렇게 한국 축구의 2014년이 열리고 있었다.

이구아수(브라질)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홍명보호 전후 일정은?

닷새간 체력 강화·현지 적응 훈련 21일 미국행…북중미 3국 평가전

홍명보호가 2014브라질월드컵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했다.

대표팀은 15일(이하 한국 시간) 베이스캠프인 이구아수에 도착했다. 3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전후지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준비를 알렸다. 코칭스태프 구성이 완료되면서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홍명보 감독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찌감치 이번 전후 구상을 밝혔다. 브라질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모의고사를 치러본다는 계획이다. 이번 3주 동안 진행되는 브라질-미국 전후를 월드컵 직전과 유사한 환경으로 꾸몄다. 미국에서 진행될 모두 3차례 평가전을 잡은 것도 본선 조별리그 3경기와 맞추려는 의도가 강했다.

우선 현지 적응 훈련에 집중한다. 낮선 기후와 그라운드 컨디션 등에 빠르게 녹아들어야 한다.

이번 소집된 대표팀 선수들은 유럽파를 제외한 국내와 위주로 짜여졌다. 비시즌임을 감안해 천천히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선수들도 도착 첫 날 수영 등을 즐기며 컨디션 회복에 나섰다. 20일까지 닷새간 체력훈련에 집중한 뒤 21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미국에서는 북중미 강호들과 친선경기가 예정돼 있다. 26일 미국 LA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1위 코스타리카와 첫 경기를 갖는다. 30일에는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21위), 2월 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카슨에서 미국(14위)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3차례 평가전을 통해 브라질월드컵에 나설 국내와 선수들의 테스트를 마친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축구대표팀이 30시간 넘는 비행 끝에 15일(한국시간) 브라질에 도착했다. 대표팀 홍명보 감독(오른쪽)이 이구아수 공항에서 안톤 두 샤프니에 전력분석 코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위 사진) 홍 감독이 이구아수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온 뒤 마중 나온 현지 교민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구아수(브라질) | 남장현 기자

하나부터 열까지 ‘월드컵 시뮬레이션’

남장현기자의 이구아수 리포트

현지 기후·환경·잔디·숙소 적응 집중 스테프는 교통·음식·문화 등 파악 주력
축구 외에 모든 생활 감각 익숙시켜야

홍명보호가 동계 강화훈련을 위해 여장을 풀 브라질 파라나주 포스 도 이구아수는 ‘악속의 땅’이다.

앞으로 태극전사들이 흘릴 굶은 땀방울이 사상 첫 원정 월드컵 8강이란 결실로 이어질 장소다.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부터 21일까지 별도의 장소 변경 없이 이구아수에 머물 계획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때 한국대표팀은 이곳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담금질을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여장을 풀 숙소인 버번 카타라타스 컨벤션&스파리조트와는 이미 가계약을 맺었고, 이번 훈련 기간 중 최종 계약서를 교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월드컵 기간 동안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될 리조트에서의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훈련 참가 23명 가운데 최종 엔트리에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어도 일부 경험만으로도 전체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표팀 홍명보 감독도 이곳에 도착한 후 “이제부터는 모든 게 월드컵이 중심이다. 이구아수에서 발생할 하나부터 열까지 사안들은 월드컵 시뮬레이션(simulati

on)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란 사전적 용어로 어떠한 문제나 현상 따위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사전 준비해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의미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단순히 조직력을 강화하고, 많은 실전 경험을 쌓는 것만이 좋은 성과를 보장하는 전부가 하기 어렵다. 현지 기후와 환경, 잔디, 숙소 등 제반 요소에 적응하는 것도 반드시 전제돼야 할 조건이다. 적정 시간을 보내며 “이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라는 명확한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대표팀과 항상 함께 하는 지원 스태프도 소중한 자산을 얻어갈 수 있다. 선수단 이동 동선과 음식, 현지 문화 등을 파악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팀이 이구아수에 도착하기 전, 전담 조리장과 지원 스태프가 미리 선발대로 현지와 와 빈틈없는 준비를 했다. 오랜 비행에 지친 선수들이 쌀밥과 갈비찜, 김치찌개, 생선조림 등 맛갈 나는 한식으로 전지훈련 첫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물론 대표팀이 상파울루에서 이구아수로 이동할 때 겪은 이유 없는 항공기 연착 역시 브라질 특유의 느긋한 문화를 약간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음은 물론이다. 단순히 이번 전지훈련을 ‘전력 강화’ 차원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편집 | 박재운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